

2021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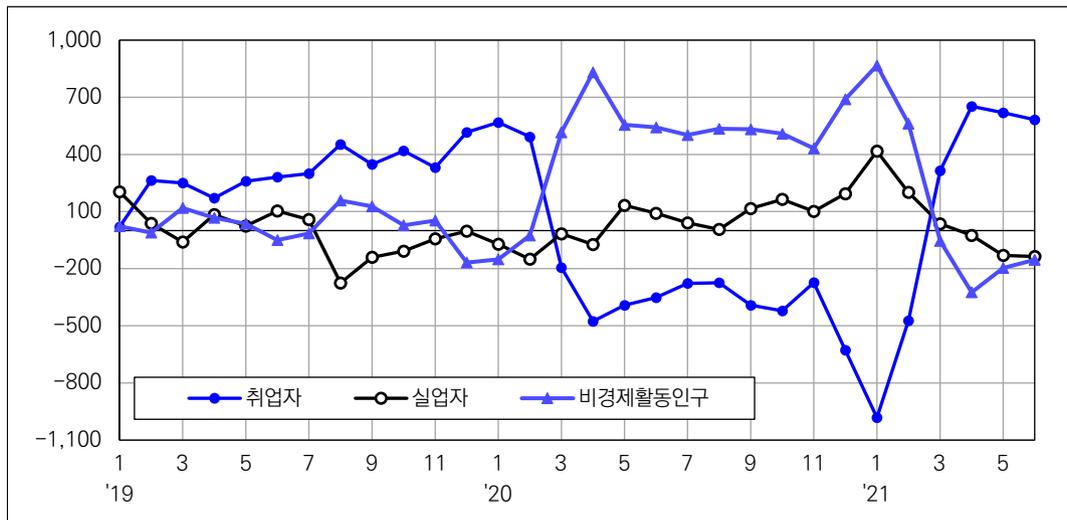
동향분석실

I. 2021년 상반기 노동시장 개관

2021년 상반기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의한 고용 침체로부터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난 시기였다. 상반기 전체로는 취업자 수가 12만 명 증가에 그쳤지만 이는 지난해 기저영향으로 2분기에 이르러서야 취업자 증가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1분기에 취업자가 전년동기 대비 38만 명 감소했고, 2분기에는 61.8만 명 증가했다. 2분기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감소분을 약 20만 명가량 상회하는 규모로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감소와 함께 고용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수치이다.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단기간 변화 관찰에 용이한 계절조정 전월대비 취업자 증감 수치를 보아도 2월 큰 폭의 증가 이후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례적으로 증가한 일시휴직자도 크게 줄었다.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감소도 동시에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양적 측면에서의 고용 회복세는 다양한 지표에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대면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눈에 띈다. 공공일자리사업과 관련 있는 사회서비스업 역시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업황 회복에 따라 고용도 동반해서 증가 중이다. 2020년 상반기 대면서비스업 고용 감소의 기저로 2021년 상반기에는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회복세가 예상되었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 정도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고용 증가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다만, 서비스업 전체로 보았을 때 기업경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증가하는 등 2020년 상반기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고용 회복을 가리키고 있지만 회복의 정도는 연령별, 종사상지위별, 산업별 등 부문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제II장에서는 부문별 고용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본다. 먼저 노동시장이 활력을 되찾아가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살펴본 후 취업자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살펴본다. 또한 연령별, 종사상지위별, 산업별로 상반기 노동시장을 평가한다. 제III장에서는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하반기 및 연간 고용을 전망한다.

〈표 1〉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명, %p)

	원계열 전년동월대비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2020 상반기	2020 하반기	2021 상반기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분기	2분기						
취업자	-59	-377	119	-380	618	-298	532	128	68	101	18
실업자	-15	104	61	218	-97	262	-393	-32	-64	42	-24
비경제활동	378	533	117	458	-225	88	-120	-76	17	-120	25
고용률	-0.5	-1.2	-0.1	-1.3	1.0	-0.7	1.2	0.2	0.1	0.2	0.0
실업률	0.0	0.4	0.2	0.8	-0.5	0.9	-1.4	-0.1	-0.2	0.1	-0.1
일시휴직	592	269	-460	-252	-669	-401	-51	-70	-12	11	-5

주: 일시휴직자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증감은 자체 추산 수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KOSIS.

II. 2021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1.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감소세

2021년 상반기에는 실업자에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업자 수 증감은 2020년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증가로 전환된 후 2020년 3분기와 4분기를 거치며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추세는 2021년 1분기까지 이어졌는데, 작년 1분기 코로나19 1차 확산의 기저 영향과 코로나19 3차 확산 및 2021년도 노인일자리아업 시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1년 1분기 실업자 증가폭은 21.8만 명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3월부터 경제 상황이 안정을 되찾아가며 실업자도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감소로 돌아섰다.

2021년 2분기는 실업률뿐만 아니라 확장실업률도 크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그림 2 참조). 확장실업률은 1월 크게 확대된 후 3월에 증감률이 감소로 전환되고 6월까지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구성 요인들의 변화를 보면, 1월에는 실업자의 증가가 확장실업률의 확대를 주도하였다. 3월과 4월에는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수가 감소한 것이 변화의 주요 요인이었다. 반면 5월과 6월의 확장실업률 감소는 실업자가 감소한 탓이 크게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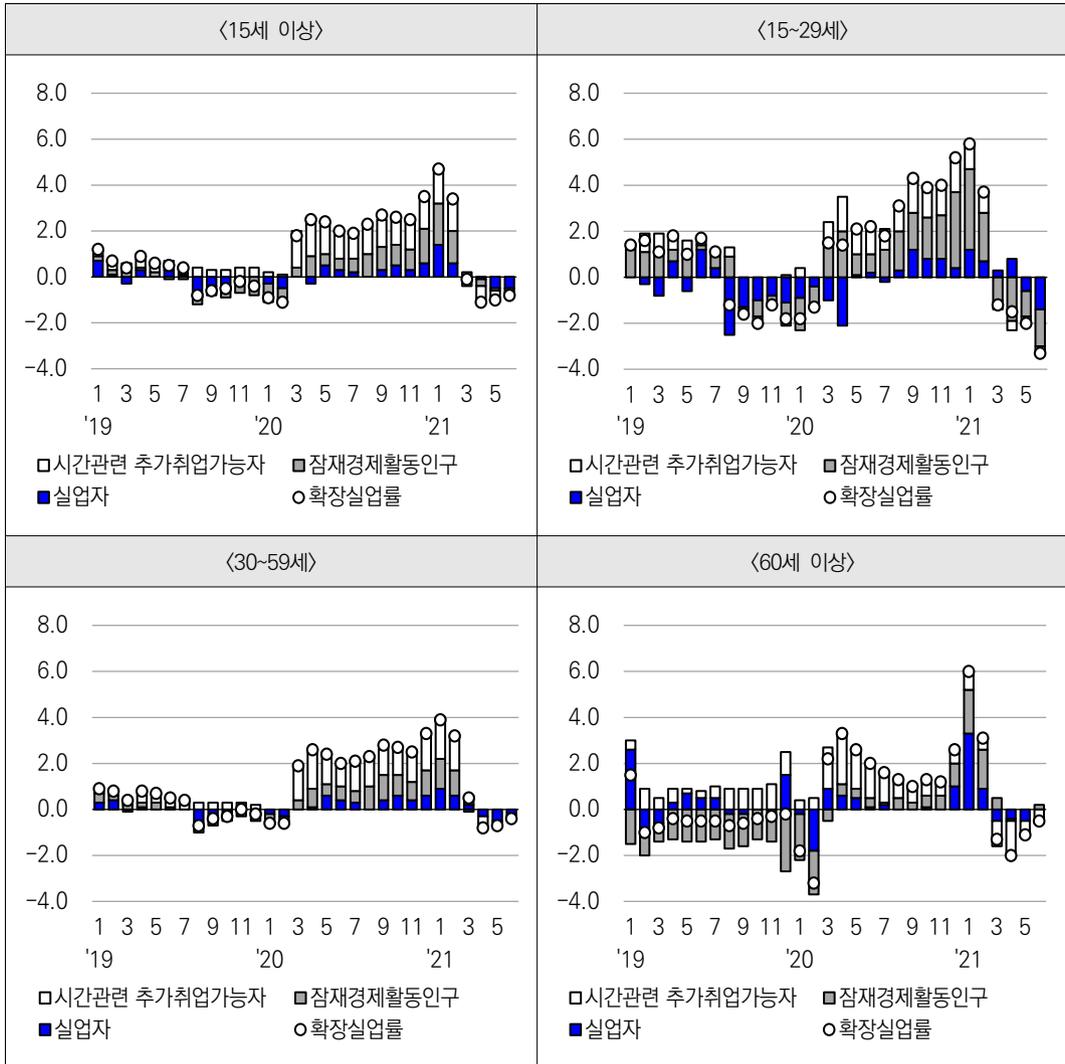
확장실업률의 변동을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그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확장실업률 감소 추세가 두드러진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020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 1월 27.2%를 기록하며 통계가 조사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월부터 상황이 빠르게 반전하여 3월에는 잠재구직자¹⁾ 수가 전년동월대비 감소로 전환되었고 2분기에도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와 동시에 실업자는 감소하고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어 확장실업률로 본 청년층 노동시장 상황은 2021년 2분기에 빠르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역시 2021년 상반기에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우선 2020년의 변화 추이를 <표 2>에서 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내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코로나19 1차 확산 이후인 2분기 크게 확대되었고 2차와 3차 확산이 발생하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는 3~4분기에도 해소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21년 1분기까지 이어졌으나, 2분기에는 고용 상황이 회복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22.5만 명 감소로 전환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였다. 2021년 2분기의 변동을 사유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주로 육아 및 가사와 노동시장 활동을 쉬

1)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자.

[그림 2] 연령대별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와 각 구성 요인의 변동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주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 및 잠재구직자를 합한 것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었던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것과 교육기관 등에 통학하는 인원의 감소폭이 확대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통학의 경우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방역수칙 강화의 영향으로 2020년에도 추세적 감소세를 이어갔는데 2021년 상반기에 그 추세가 더 강화되었다. 반면 취업을 준비하는 인원은 2020년에 이어 2021년 상반기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상반기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인구(연료)의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로자의 평균 연령은 2021년 상반기에 79.38세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평균 연령의 최근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은 2017~20년 상반기 +0.52~+0.58세에서 2021년 상반기 0.11세로 그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연로자의 평균 연령 증가가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령층이 노동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본다면 연령 증가폭 축소와 연로자 증가폭의 확대는 고령층 노동시장의 성장 동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고령화가 더 진행될수록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르는 고령층의 수도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은 2020년 1분기 감소에서 2분기 증가로 전환된 후 3분기와 4분기에 증가폭을 키워 갔다. 이 추세는 2021년 1분기까지 이어져 18.4만 명이 구직을 단념하였지만 2분기에는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어 전년동기대비 3.5만 명이 구직을 포기하였다(표 3 참조). 2021년의 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15~64세가 1분기 큰 폭의 증가를 보인 후 2분기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65세 이상은 1~2분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여 주로 근로연령층에서 구직단념자 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구직단념 사유별로는 15~64세의 경우 노동시장 수요 측면과 관련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의 사유에서 2021년 2분기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일시휴직자는 작년 크게 증가한 기저영향으로 2021년에는 크게 감소하였다. 코로나19 1차 확산의 기저영향으로 2021년 3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118만 명 감소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6월 기준으로 일시휴직자 수는 2021년 40.3만 명으로 2019년 36.9만 명과 비교하면 평년 수준에 근접하여 일시휴직자는 빠르게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0				2021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전 체	113	643	523	543	458	-225
육아·가사	-77	245	256	246	232	-113
통학	-68	-56	-87	-34	-96	-220
취업준비	-9	64	68	50	64	54
연로	-10	56	44	56	77	95
쉬었음	251	350	268	260	222	-30
기타	26	-16	-26	-34	-40	-12

주 : 1)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학원 통학 및 진학준비 사유를 포함함.

2)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및 취업준비 사유를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구직포기원인별·연령대별 구직단념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0				2021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구직단념자 전체	전 체	-23	62	102	149	184	35
	15~64세	-19	48	85	126	146	3
	65세 이상	-4	14	18	23	38	32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전 체	10	104	116	161	190	28
	15~64세	16	90	94	136	153	5
	65세 이상	-6	15	22	25	37	23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전 체	-33	-42	-13	-12	-6	6
	15~64세	-35	-42	-10	-9	-7	-2
	65세 이상	2	0	-4	-3	1	9

주 : 1)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지난 1년 안에 구직활동은 했으나 노동시장적 원인으로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함.

2)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는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를 포함함.

3)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맞지 않을 것 같아서'는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를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청년층과 고령층 위주의 고용 회복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 고령층(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청년층은 2020년 상반기 감소 기저를 감안하면 큰 폭의 취업자 증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 소폭이나마 취업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업자 증가는 2분기에 집중해서 나타났으며 고용률 증가, 실업률 감소 역시 2분기에 본격화되었다. 고령층은 기본적으로 인구 증가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취업자 증가폭도 클 수밖에 없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20년 상반기에도 고용이 증가했으며 2021년 역시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동시에 증가했다.

30~40대는 이전부터 인구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역시 인구 감소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기저영향으로 1분기에 비해 2분기에 취업자 감소폭이 줄었으며 고용률은 2분기에 소폭 증가로 전환되었다. 50대 취업자는 1분기에 감소했지만 2분기에 반등하여 상반기 전체로 보면 큰 변화 없었다.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청년층의 고용률 증가 정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졌다. 청년 내 세부연령대별로 인구 변화가 취업자 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

〈표 4〉 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p,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연도		상반기			분기		
		2019	2020	2019 상반기	2020 상반기	2021 상반기	2020 4분기	2021 1분기	2021 2분기
15~29세	인구	-88	-149	-94	-129	-135	-172	-137	-133
	취업자	41	-183	26	-135	36	-265	-103	176
	고용률	0.8	-1.3	0.7	-0.9	1.1	-2.1	-0.5	2.6
	실업률	-0.6	0.1	0.1	-0.7	0.2	1.1	1.1	-0.7
30대	인구	-105	-145	-102	-137	-150	-153	-150	-151
	취업자	-53	-165	-86	-104	-160	-227	-227	-93
	고용률	0.3	-0.7	-0.1	0.0	-0.7	-1.6	-1.6	0.3
	실업률	-0.1	0.2	0.1	-0.2	0.3	0.9	0.9	-0.4
40대	인구	-137	-67	-148	-73	-71	-64	-68	-75
	취업자	-162	-158	-168	-144	-78	-170	-154	-2
	고용률	-0.6	-1.3	-0.6	-1.1	-0.3	-1.4	-1.2	0.7
	실업률	-0.2	0.2	0.0	0.1	0.1	0.4	0.3	-0.1
50대	인구	99	12	109	28	-13	-7	-10	-15
	취업자	98	-88	91	-64	-1	-111	-99	96
	고용률	0.2	-1.1	0.1	-1.0	0.1	-1.2	-1.1	1.2
	실업률	0.0	0.4	0.3	0.4	-0.1	0.4	0.5	-0.7
60세 이상	인구	553	631	539	615	665	651	661	669
	취업자	377	375	345	388	322	332	202	441
	고용률	1.4	0.9	1.2	1.2	0.4	0.5	-0.5	1.2
	실업률	0.3	0.2	0.4	0.0	0.5	0.5	1.3	-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문에 고용률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을 평가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0대 전체 고용률은 2020년 2월부터 크게 감소한 이후 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21년 2월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률 감소폭은 20대 초반, 후반 모두 최대 -4%p가량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고용률 회복속도는 20대 초반에서 더 빠르게 나타났다. 이는 임시직·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 비중이 더 높은 20대 초반 청년 취업자의 특성상 2021년 상반기에 나타나고 있는 해당 부문 고용 회복 영향이 20대 초반 노동시장에 좀 더 즉각적으로 반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자 수 변화를 보아도 20대 초반 고용의 회복세가 더 가파르다. 20대 초반은 인구가 약 5만 명가량 감소 중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취업자가 약 7만 명 증가했다. 대면서비스업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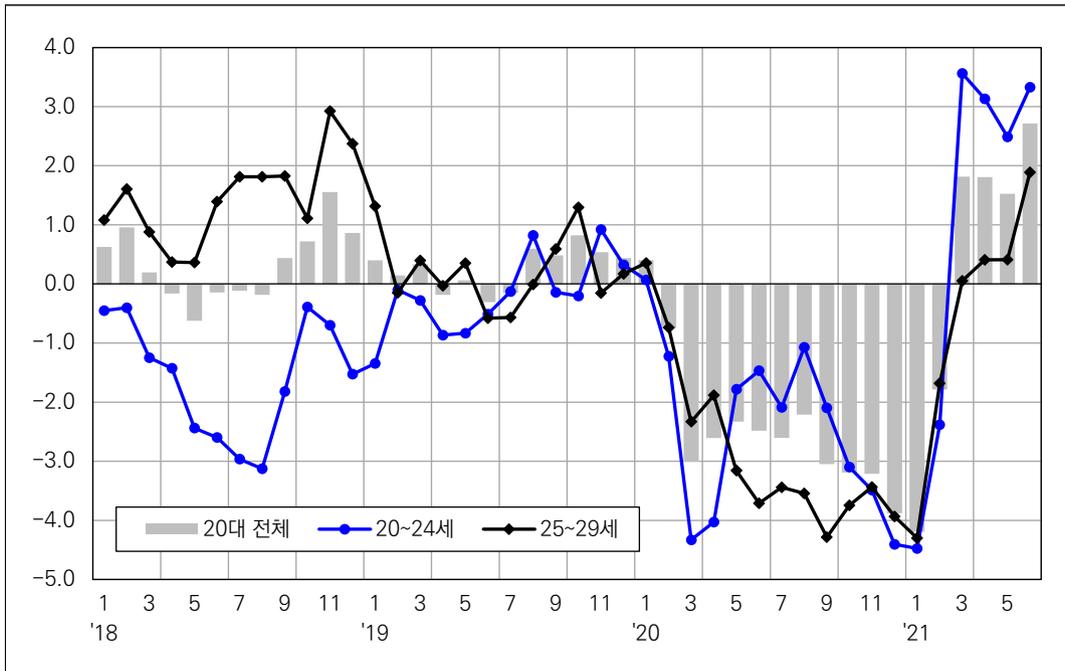
감소폭 완화에 따른 임시직 고용 증가 영향에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고용 증가 영향이 더해졌다. 20대 후반은 2분기 상용직 증가가 특징적이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상용직 일자리가 다수 분포한 산업들에서 고용이 증가했는데, 이들 산업에서 나타난 고용 증가는 2020년 감소 기저폭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30~50대 중장년층은 30~40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외부충격이 있지 않는 한 취업자 감소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연령대의 고용률 역시 2분기 소폭 증가했으나 상반기 전체로는 감소 중이기 때문에 고용 상황이 양호하다고 할 수는 없다.

30~50대 중장년층 취업자 변화를 성별·산업별로 살펴보면, 고용비중이 높은 곳에서 고용의 변화폭도 크게 나타났다. 남성은 제조업, 여성은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의 고용 감소가 특징적이다. 특히 중장년층 여성의 경우, 대면서비스업 종사 비중이 높고 해당 부문의 고용 감소폭도 컸다. 이는 청년층의 대면서비스업 고용이 일정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남성, 여성 모두에서 도소매업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이는 해당 산업 고용이 코로나19 영향과는 관계없이 지난 3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20대 연령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5〉 산업별·성별 중장년층(30~50대)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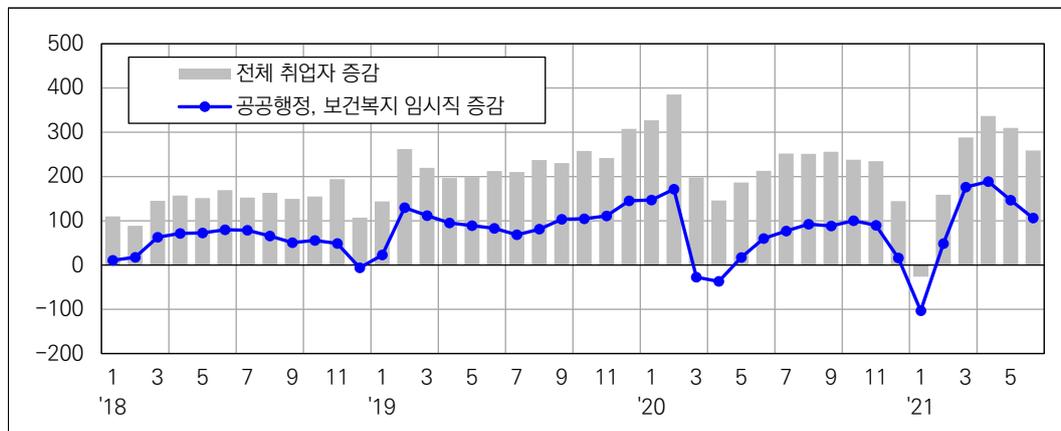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30~50대 남성			30~50대 여성		
	2020 상반기	2020 하반기	2021 상반기	2020 상반기	2020 하반기	2021 상반기
전 체	-154	-202	-116	-158	-309	-124
농림어업	8	-8	-17	-2	-11	-20
제조업	-34	-62	-67	-19	-20	23
건설업	-68	-14	24	3	2	3
도소매업	-74	-77	-85	-66	-80	-74
운수창고업	2	-9	16	17	8	7
숙박 및 음식점업	6	-25	-8	-102	-111	-73
정보통신업	2	14	-11	1	-2	1
금융보험업	-15	-2	5	-14	-17	7
부동산업	-3	-23	-18	-9	-30	-12
전문과학기술서비스	9	-21	21	2	-9	1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9	19	19	14	-11	-13
공공행정	-5	23	39	4	48	28
교육서비스	-7	9	4	-49	-78	-16
보건사회복지서비스	7	-10	-5	51	11	52
예술·스포츠	8	2	-2	17	8	-6
협회·개인서비스	-16	-28	-31	-22	-31	-4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6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증감 및 공공행정·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임시직 종사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60대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고령층은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된 2020년에도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 역시 이 같은 모습이 지속되었으며, 실업률 증가는 1분기, 고용률 증가는 2분기에 집중되었다. 이는 고령층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관련 고용의 영향으로 1분기에는 사업 신청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2분기에는 본격적인 사업 진행으로 인한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취업자 중 공공행정·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임시직 종사자가 1월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노인일자리 관련 고용의 증가가 계속됨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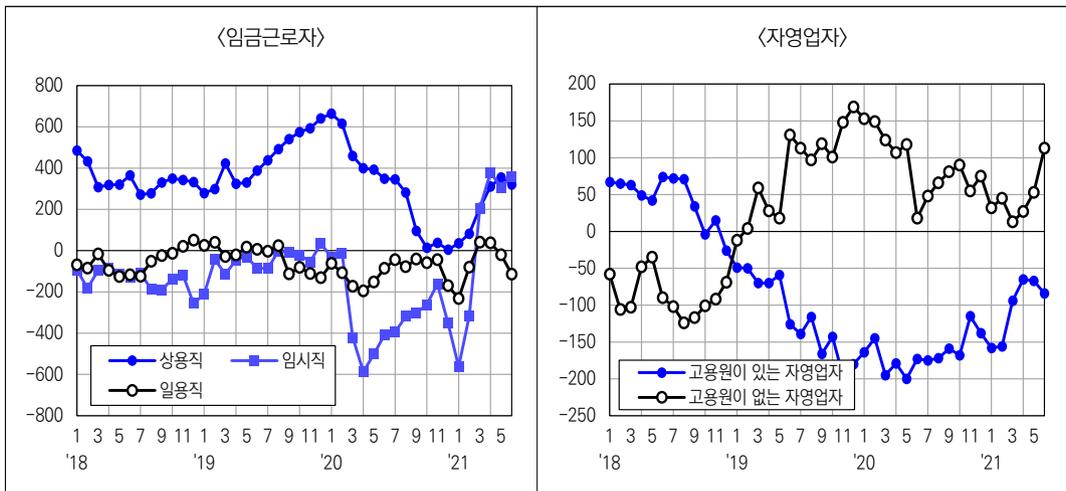
3. 상용직, 임시직 위주의 고용 회복

2020년 상반기에는 이례적 수준의 임시직 감소가 있었다.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수요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고용조정이 쉬운 임시직 고용이 줄어든 것이다. 임시직 고용은 2021년 1월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회복되고 있다. 2분기에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 교육서비스업과 같은 대면서비스업 임시직 취업자가 증가로 전환되었고, 일자리사업 등의 영향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임시직 고용도 늘었다. 계절조정계열로 보았을 때, 2021년 6월에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20년 2월의 임시직 고용 수준을 회복했다.

2020년 하반기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던 상용직 고용은 2021년 1분기부터 다시 증가폭을 늘렸으며, 2분기에는 33만 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고용 침체는 상용직에 한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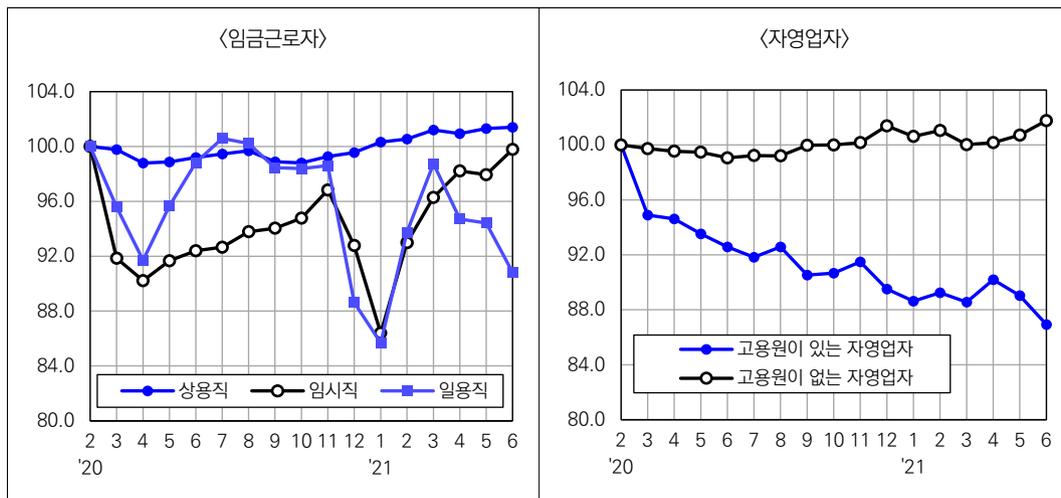
[그림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원계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6] 코로나19 확산 이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계절조정계열)



주: 2020년 2월=100.
자료: 통계청, KOSIS.

는 다소 시차가 있게 나타났으나 회복의 시기는 임시직과 큰 차이가 없었다. 1분기부터 꾸준히 증가폭을 늘렸으며 2분기에는 임시직과 비슷한 수준의 취업자 증가 양상을 보였다. 세부내용은 조금 달랐는데, 도소매와 숙박 및 음식점업 상용직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공공행정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사회서비스업 상용직 취업자는 증가 중이다. 상용직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최근에 고용이 늘고 있는 건설업 상용직도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절조정계열로 보았을 때, 상용직은 고용 증가 규모가 줄었던 것이 지 고용이 감소했던 것은 아니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영향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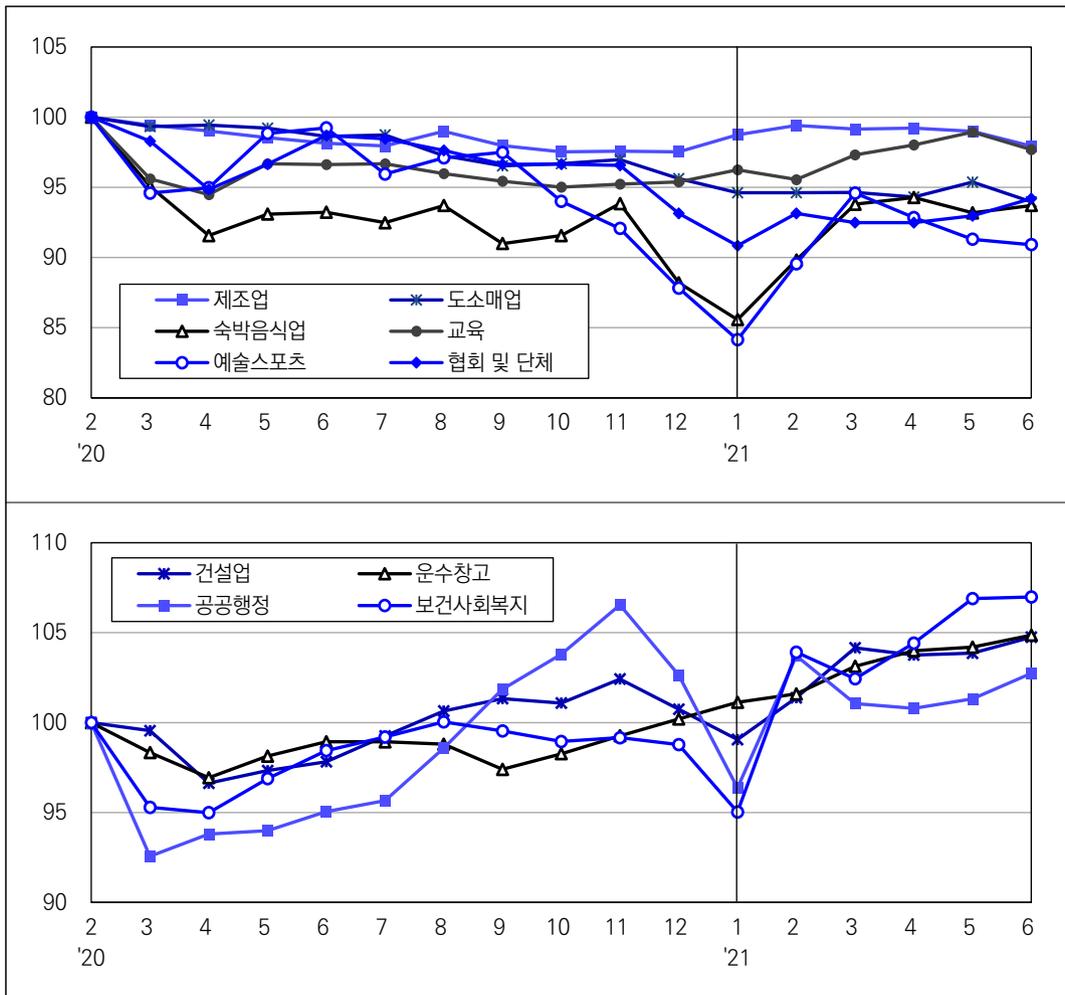
임시직이 감소했던 시기인 2020년에는 일용직 역시 부진했다. 2021년 1월 이후 일용직 감소폭이 줄었으나 6월에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일용직은 건설업 고용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2분기에 건설업 일용직이 5만 명 이상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건설업을 중심으로 일용직 고용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임시직과 달리 대면서비스업에서는 일용직 고용 개선이 크지 않았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감소 추세에 있었다. 다만, 임금근로자가 크게 감소했던 시기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가 동반해서 나타나지는 않았다. 상반기에는 고용 감소의 폭이 다소 줄었는데, 건설업을 제외하면 2020년 상반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업종은 없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금융위기 이후로 경기 침체에 증가하는 경향이 특징적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때에도 고용이 감소하는 모습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2021년 상반기에 다시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으며, 택배 및 관련 고용이 포함된 운수창고업, 대면서비스업 자영업자의 감소폭 축소 등의 영향이 컸다.

4. 업황 개선으로 제조업 고용 회복세

2021년 상반기에 취업자 전체로는 고용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나 업종별로는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 [그림 기]은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산업별 월별 취업자 추이를 보여준다. 공공일자리와 관련 있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및 공공행정의 고용이 크게 증가했고, 운수창고와 건설업도 올해 지속적인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2월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대면서비스업은 2021년 상반기에도 고용이 여전히 부진

[그림 기]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2020년 2월 = 100)



주: 계절조정계열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 모습이다. 숙박·음식점업은 2월 이후로 전월대비 취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20년 2월 취업자의 약 85.6%였던 것을 생각하면 숙박·음식점업에서 고용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정체되어 6월에도 지난해 2월 취업자의 9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도 등교 개학이 부분적으로 시행된 3월 이후 고용이 회복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친다. 2020년 취업자가 각각 16만 명, 4만 4천 명 감소했던 도소매업과 협회 및 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은 올해도 눈에 띄는 고용 증가 없이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예술·스포츠는 최근 들어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제조업 고용은 2021년 1월 이후 개선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대비 5만 3천 명 감소했다. 몇 년간 이어지던 취업자 감소 추세에 코로나19 확산과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등 대내외 요인이 더해지면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그러나 2021년 들어 세계 경기

〈표 6〉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계절조정 전기대비			2020년 2월 대비	
	1분기	2분기	6월	1분기	2분기	6월	6월 증감	6월 증감률
농림어업	-3	3	16	46	-95	19	-87	-5.8
광업	-2	-1	-1	1	-1	0	-2	-17.1
제조업	-28	6	-10	69	-18	-47	-92	-2.1
전기가스	-3	-3	-5	-3	-6	1	-10	-12.8
하수, 원료재생	16	19	17	-1	9	2	27	18.8
건설업	34	137	140	2	52	17	95	4.7
도소매업	-193	-161	-164	-65	-2	-50	-214	-6.0
운수창고업	42	96	89	41	36	10	73	4.9
숙박 및 음식점업	-209	26	12	-34	92	11	-144	-6.3
정보통신업	4	42	57	14	48	23	67	7.9
금융보험업	14	32	44	30	15	8	28	3.5
부동산업	-40	14	25	7	28	5	-10	-1.9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4	70	87	2	36	25	48	4.1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25	74	81	-23	25	4	64	4.8
공공행정	51	83	87	-45	14	16	30	2.7
교육서비스업	-42	43	22	22	34	-24	-44	-2.3
보건사회복지서비스	63	224	208	36	134	2	166	7.0
예술·스포츠	-44	-31	-43	-10	12	-2	-46	-9.0
협회·단체	-86	-43	-55	-40	13	15	-71	-5.8
가구내 고용활동	4	-7	-19	-8	-7	-8	-7	-8.2

주: 2020년 2월 대비 2021년 6월 증감(률)은 계절조정계열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회복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국내 경기도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제조업 고용에 긍정적인 환경이 마련되었다.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은 1분기, 2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1.7%, 0.7% 증가했다(전년동기대비 각각 1.9%, 5.9% 증가). 현재 경기 상황과 향후 경기를 예고해 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상승 추세이다. 특히 수출 증가는 기록적이다.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6.1%로 기저효과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고,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이다²⁾. 경기 회복과 수출 실적에 따라 제조업 고용도 개선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로 제조업 취업자는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2분기 중 증가로 전환되었다. 계절조정계열로 보아도 취업자가 1분기에 전기대비 크게 증가했고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감소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반기 내내 장기 추세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8 참조). 제조업 고용 개선세는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월 전년동월 대비 증가로 전환된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사업체 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도 올해 들어 감소폭이 축소되기 시작하여 5월에는 증가로 전환되었다(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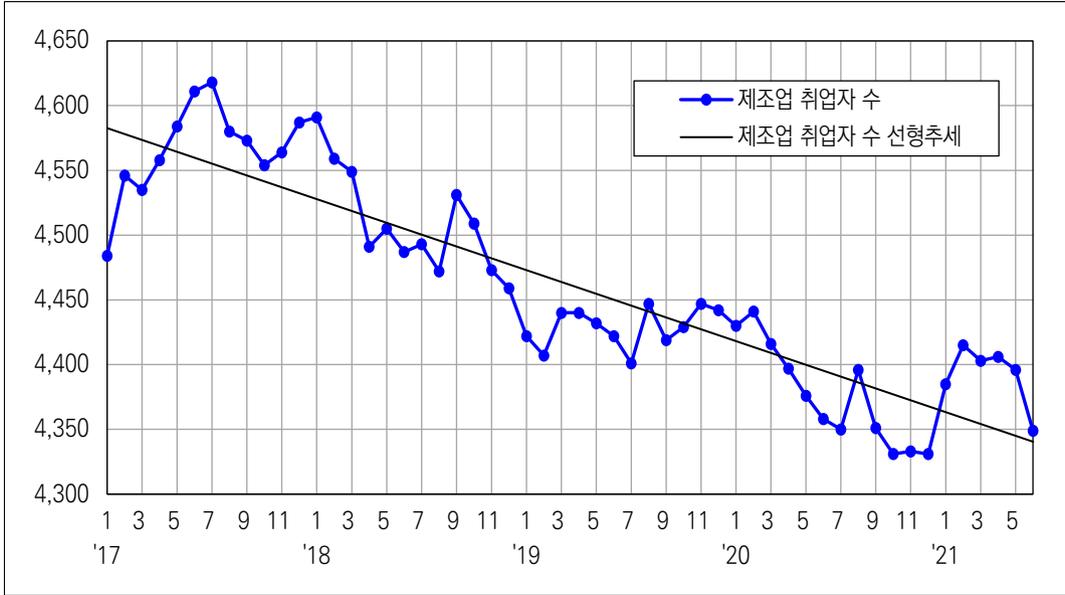
제조업 세부업종별로도 제조업 경기 및 수출 실적이 좋은 업종들에서 고용 증가가 나타났다. 제조업 내 고용비중이 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이 그 예이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1분기, 2분기에 생산과 출하지수가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매출실적 기준 기업경기실사지수도 3월 이후로는 장기평균(2003~20년 12월까지 평균치 96)을 크게 상회한다. 주요국 소비심리 개선으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소비재 수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9.9% 증가했다. 상반기 완성차 생산(전년동기대비 11.5% 증가) 및 수출(28.9% 증가)도 호조이다. 자동차 산업의 업황 개선은 고용 회복으로 이어졌다. 2018년 1월 이후 38개월 연속 감소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월 증가로 전환된 이후 매월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사업체 종사자 수도 올해 들어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어 6월에는 증가로 전환되었다. 한편 반도체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생산 및 수출 출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은 1분기, 2분기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21.9%, 27.2% 증가했고, 수출 출하지수는 43% 이상씩 증가했다³⁾. 한국 수출 품목 중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 수출은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1.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고용도 같이 증가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체 종사자 수는 매월 증가폭을 확대하며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반도체 투자 및 미래차 관련 설비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산업에서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2) 전체 수출 실적 및 품목별 수출 실적은 6월 30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

3) 산업활동 관련(제조업 생산·출하지수 및 국내 건설수주액 등) 2분기 수치는 잠정치이다.

[그림 8] 제조업 계절조정계열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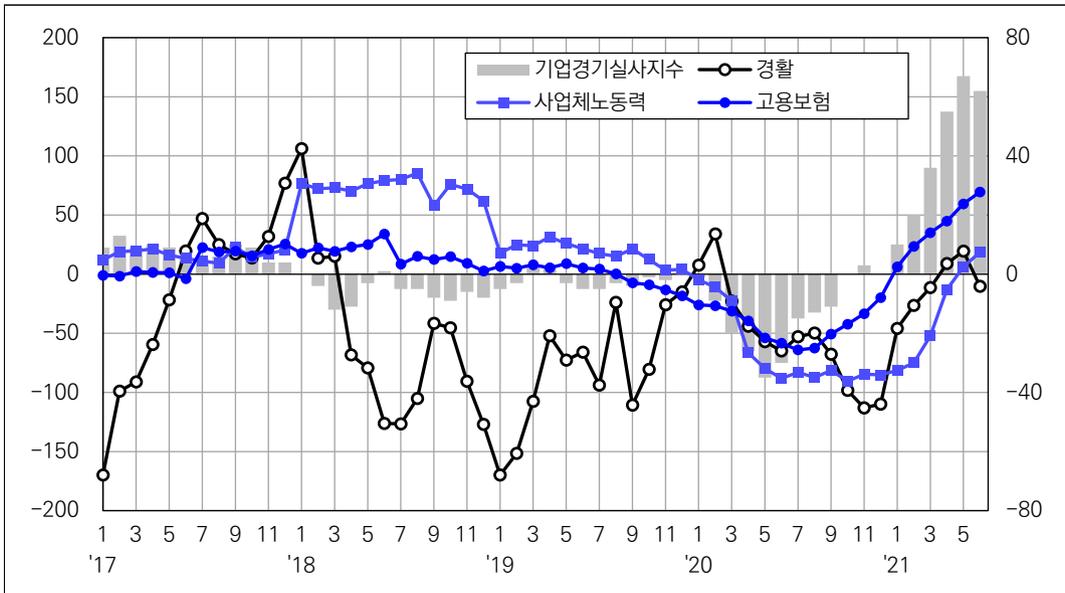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그림 9] 제조업 기업경기지수 증감 및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p,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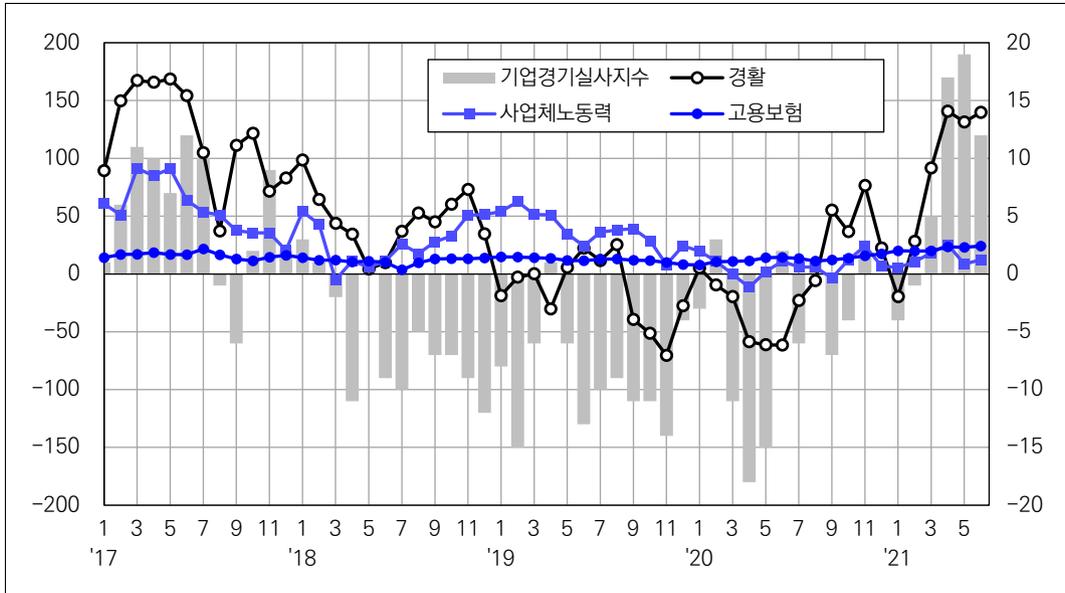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고용도 회복세이다. 상반기 중 특수 목적용 기계를 중심으로 기타기계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내수 및 수출 출하도 증가했다.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공작기계의 수출이 좋은 상황인데 상반기 중 일반기계 수출은 9.1% 증가했다. 고용도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1년 넘게 감소하던 사업체 종사자 수도 5월 들어 증가로 전환되었다. 국내기계수주도 올해 2월 이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기타기계 제조업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고용 감소가 지속되었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자동차, 건설 등 전방산업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3월 이후 고용 회복세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가정용 기기의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4분기 연속 생산 증가세에 있는 전기장비 제조업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사업체 종사자 모두 1~2분기 증가폭을 확대하며 고용 상황이 개선되었다.

5. 상반기 취업자 큰 폭으로 증가한 건설업은 이후의 고용 상황도 기대

건설업 고용은 2021년 상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취업자 감소가 확

[그림 10] 건설업 기업경기지수 증감 및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p,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ECOS.

대되기도 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영향보다는 대부분 건설업 경기변동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올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기저영향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2020년 9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폭설과 한파로 기상 조건이 악화되었던 올 1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3월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어 2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3만 7천 명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 1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은 2017년 2분기 16만 3천 명 증가한 이후로 처음이다. 경찰 취업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9월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올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만 2천 명 증가했고, 사업체 종사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설수주가 1분기에 민간부문 중심으로 건축부문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7.3% 증가했고, 2분기 총 수주액은 공공부문과 토목에서 크게 증가하며 16.1% 증가했다. 건축허가면적도 1분기, 2분기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7.2%, 46.1% 증가했다. 선행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고, 정부 SOC투자 확대와 주택 공급 증가 등으로 건설투자가 확대될 요인이 존재한다. 향후 건설경기 개선과 함께 건설업 고용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6. 비대면서비스업의 고용 회복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서비스업은 2020년 3월 이후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나 2021년 3월 들어 취업자 증가로 전환되었다. 2021년 상반기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4.9만 명 증가했으나 코로나 3차 확산이 반영된 2021년 1~2월을 제외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42.4만 명 증가하였다. 코로나 최초 확산이 반영된 2020년 3~6월 서비스업 취업자가 평균 34.4만 명 감소한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전년도 코로나 확산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던 업종과 현재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업종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도소매업의 경우 2021년 3~6월 사이 16.2만 명 감소하였다. 코로나 최초 확산이 반영된 시기와 유사한 감소폭을 나타내며 고용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코로나 확산 초기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나 현재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업경기 지수, 소비심리지수 등 경제지표는 2021년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여행객의 입국이 여전히 힘들고 비대면 소비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대표적인 대면서비스업으로 코로나19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2021년 1월 최대 36만 명 이상 감소하던 취업자는 3월 들어 6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듯했으나, 현재는 증가폭이 둔화하여 전년동월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3~6월과 비교해 16만 명이 감소한 상황이다. 취업자 감소는 주로 중간규모 이상의 식당, 숙박업 등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

〈표 7〉 업종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보건사회 복지	교육서비스 예술, 여가 협회·단체 개인서비스	
전 체	'20. 3월~'20. 6월	-344	-164	-172	-43	82	-147	
	'20. 11월~'21. 2월	-569	-194	-268	-46	119	-226	
	'21. 3월~'21. 6월	424	-162	12	207	297	-33	
지 위 별	상용	'20. 3월~'20. 6월	301	47	46	102	58	27
		'20. 11월~'21. 2월	-4	-45	-46	43	78	-17
		'21. 3월~'21. 6월	212	-83	-26	177	122	-16
	임시 일용	'20. 3월~'20. 6월	-521	-140	-193	-116	21	-133
		'20. 11월~'21. 2월	-407	-58	-189	-57	52	-174
		'21. 3월~'21. 6월	286	-10	21	47	180	23
	자영업	'20. 3월~'20. 6월	-124	-71	-26	-29	3	-41
		'20. 11월~'21. 2월	-159	-91	-34	-31	-11	-36
		'21. 3월~'21. 6월	-74	-70	18	-18	-5	-40
성 별	남성	'20. 3월~'20. 6월	-126	-88	-42	-11	0	-31
		'20. 11월~'21. 2월	-233	-95	-100	-3	21	-84
		'21. 3월~'21. 6월	129	-93	18	71	67	-27
	여성	'20. 3월~'20. 6월	-218	-76	-131	-32	82	-116
		'20. 11월~'21. 2월	-337	-99	-168	-43	98	-142
		'21. 3월~'21. 6월	295	-70	-6	136	23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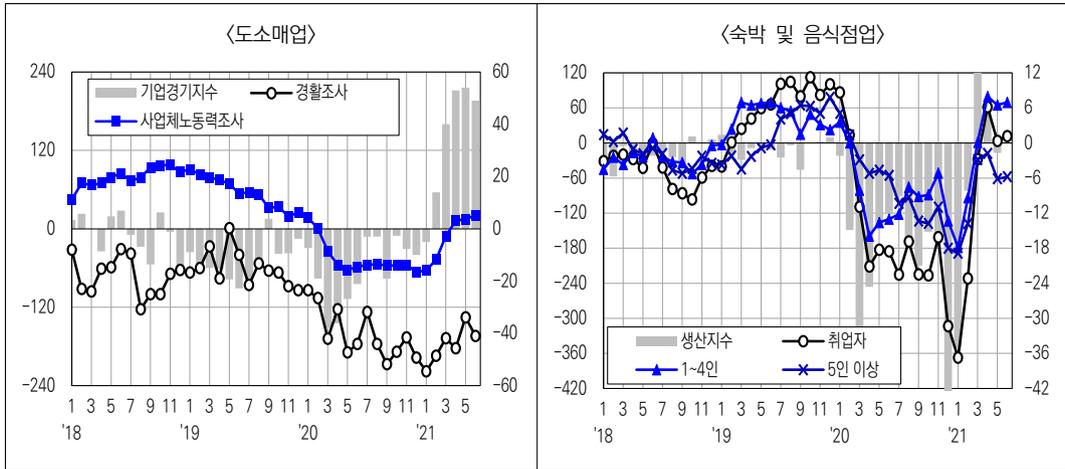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 비대면 소비문화가 숙박 및 음식점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에서 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임시직 및 파트타임 일자리로 코로나의 재확산에 따라 고용 감소가 반복되기 쉽다.

운수 및 창고업은 국내외 여행 수요 및 운송업의 발달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던 업종이었으나 코로나 3차 확산이 진행되었던 2021년 2월까지 고용이 둔화되었다. 이후 점차 국내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여객 운송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창고 및 운송서비스는 비대면 소비로 인해 가장 크게 성장한 업종으로 코로나 확산기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21년 3월 이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성 취업자는 13만 명 증가했는데, 운수 및 창고업의 비중이 높았다.

[그림 11]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기업경기지수,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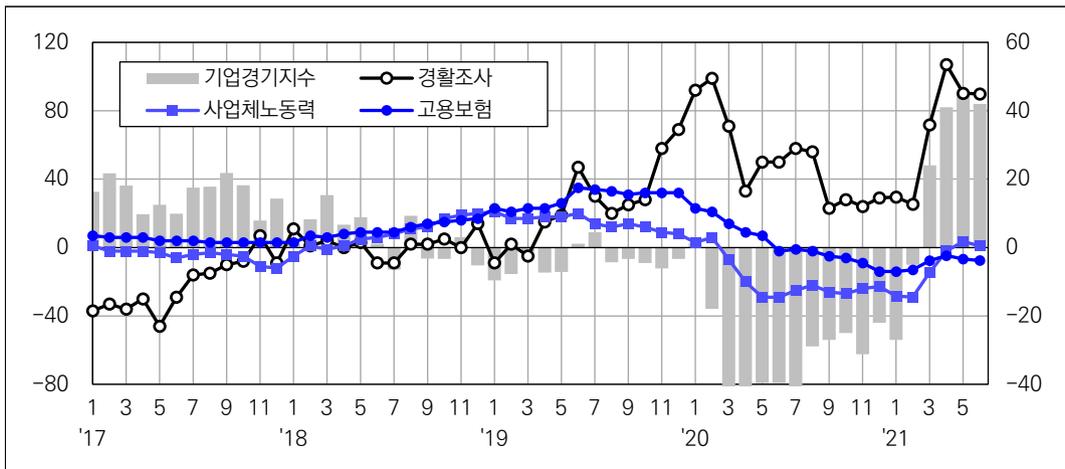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ECOS;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그림 12] 운수 및 창고업의 기업경기지수, 취업자, 임금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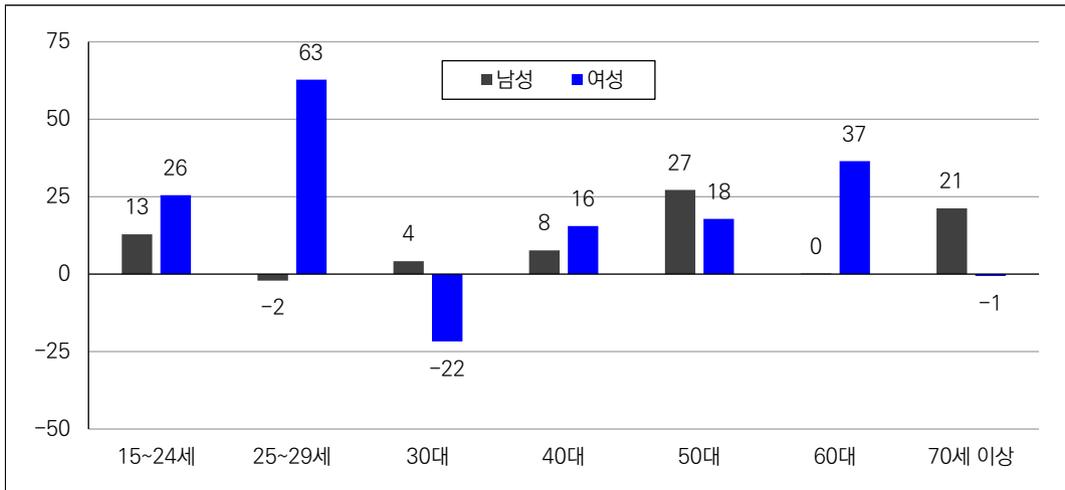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비대면서비스업종은 2020년 코로나 확산 시기에 임시직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다른 업종에 비해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2021년 이후 고용 회복도 빠르게 나타나면서 3월 이후 정보통신업은 월평균 4만 명, 금융보험업은 3만 명, 부동산업은 1만 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7만 명, 사업시설관리 및 지

원서비스업은 6만 명 증가하고 있다. 20.7만 명의 취업자 증가 가운데 상용직 비중은 85.5%를 차지하고 있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경우, 남성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지만 최근에는 여성 취업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3월 이후 남성이 월평균 7만 명 증가하는 동안 여성은 13.6만 명 증가하였다. 그중 8.8만 명은 청년층(15~29세) 여성일자리며, 남성은 1만 명 가량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고령층 취업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에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은 가사 및 청소 관련 일자리(60대), 남성은 경비업무 일자리(70세 이상)가 증가하였다. 반면 30~40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취업자가 낮은 쪽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행정 및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하 사회서비스업)은 2021년 3월 이후 월평균 3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직접일자리 목표 수는 2020년 94.5만 명에서 2021년 104.2만 명으로 약 10만 명 증가했는데 그보다 높은 취업자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령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일자리사업 지원이 지연되었던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높은 증가폭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사회서비스 취업자 증가폭이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집중되었던 것에 비하여 2021년에는 40~50대 중장년층 취업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층이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에 지원하면서 사회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아진 것

[그림 13] 정보통신, 금융보험업 등 비대면서비스업의 성별·연령대별 취업자 증감(2021년 3~6월)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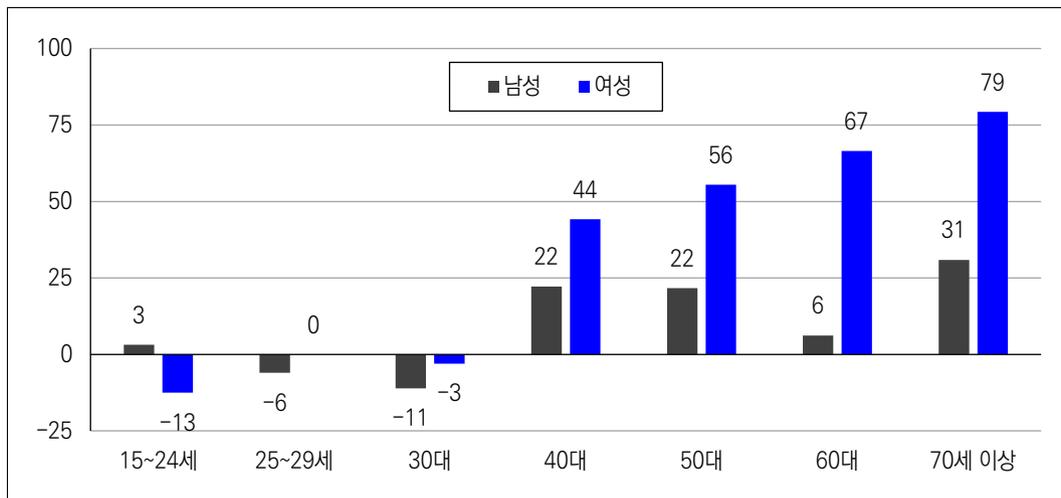


주: 표준산업분류(10차)에서 정보통신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21년 3~6월.

[그림 14] 공공행정 및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성별·연령대별 취업자 증감(2021년 3~6월)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21년 3~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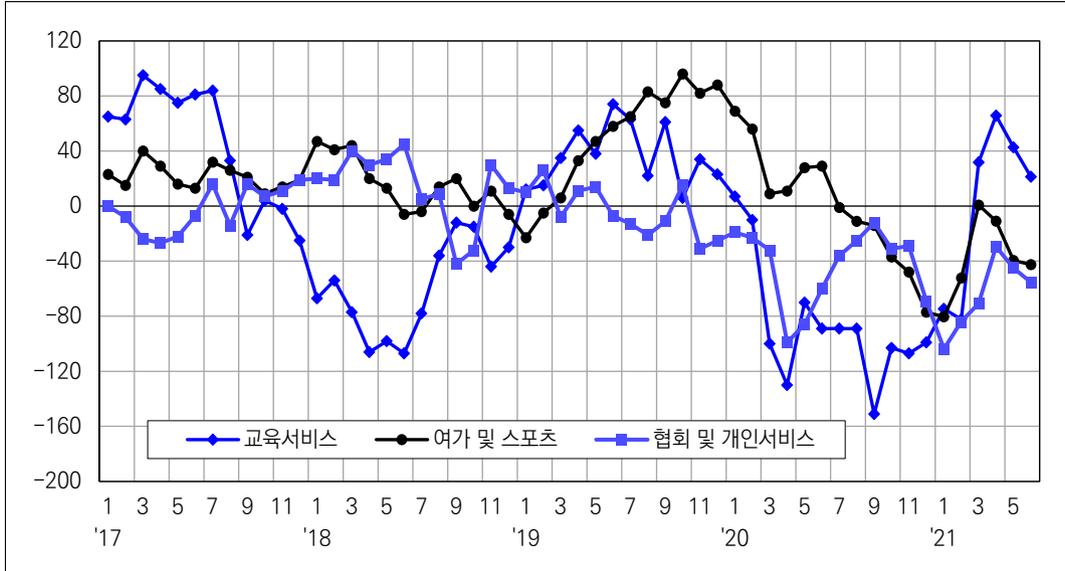
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대 및 30대에서는 사회서비스업 취업이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다. 직접일자리사업이 아닌 신규 공무원 임용 혹은 복지, 의료시설 취업으로 볼 수 있는 20대 및 30대의 취업자 증가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관찰되고 있지 않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함께 대면서비스업에 속하는 교육서비스업,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취업자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2021년 3월 들어 3만 명 감소하는 등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교육서비스업은 학원 및 방과후 교실 등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3월 이후 월평균 4만 명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서비스업은 취업자 감소 외에도 일시휴직자가 크게 증가했던 업종인데 2021년 들어서는 증가했던 일시휴직자가 대부분 일자리로 복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 여부에 따라 수도권에 주로 밀집해 있는 교육시설 종사자의 고용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음악공연, 연극, 프로스포츠 관람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관람 여부가 결정되는 예술 및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3차 확산이 반영된 시기(2020. 11~2021. 2)에는 취업자가 6.5만 명 감소했고 현재도 월평균 2.3만 명 감소하면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용원 및 수리업이 포함된 기타개인서비스업은 최초 확산시기(2020. 3~6), 3차 확산시기 모두 7만 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현재도 월평균 5만 명 이상의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음식점업과 달리 이들 업종은 비대면 소비로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코로나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에 따라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림 15] 교육서비스업, 여가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 표준산업분류(10차)에서 교육서비스업(P),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S)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III. 2021년 하반기 및 연간 고용 전망

2021년 상반기는 코로나19발 충격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고용이 회복된 시기라 평가할 만하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이 정체된 양상을 보였으나, 전월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2021년 2월 이후 다시 안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21년 6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27,331천 명을 기록해 위기 전인 2020년 2월 대비 99.4%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5세 이상 고용률 역시 위기 전의 98.5%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21년 하반기 들어 노동시장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소득 부진도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역시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국내 경기 회복전망을 반영하여 OECD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2021년의 경제성장률이 3.8~4.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 산업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부문 업황의 호조세에 힘입어 제조업 개

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업 역시 수주 및 착공물량 증가,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등 업황 개선으로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금년 하반기에도 고용 상황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의 전망요소를 반영하여 추산한 본원의 2021년 고용 전망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의 심화, 글로벌 경제 및 내수시장 위축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특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21년 취업자 수는 28.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상반기 취업자는 11.9만 명 증가에 그쳤으나, 2021년 하반기에는 전년동기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기저효과가 본격 반영되어 약 44.4만 명의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2021년 하반기 및 연간 고용 전망

(단위: %, 천명)

	2020			2021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취업자	26,799	27,010	26,904	26,918	27,454	27,185
(증가율)	-0.2	-1.4	-0.8	0.4	1.6	1.0
(증감수)	-59	-377	-218	119	444	281
실업률	4.3	3.6	4.0	4.5	3.5	4.0
고용률	59.9	60.2	60.1	59.8	60.8	60.3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만, 최근 일별 신규확진자 수가 2,000명을 상회하는 등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하반기 고용 상황에 미칠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향후 감염병 확산 추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층 강화되고, 이로 인해 숙박·음식, 여가·문화 등 대면서비스 중심의 민간소비에 충격이 다시 가해질 경우, 상기 고용 전망 수치 달성에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외 경기개선, 방역강화를 통한 확산세 억제,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어 코로나19의 고용 회복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KLI**

〈부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p, 전년동기대비, 전년대비)

		연도		상반기			분기		
		2019	2020	2019 상반기	2020 상반기	2021 상반기	2020 4분기	2021 1분기	2021 2분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4,504	44,785	44,418	44,722	45,018	44,884	44,987	45,048
	(증감)	(322)	(281)	(303)	(304)	(296)	(255)	(296)	(296)
	취업자	27,123	26,904	26,858	26,799	26,918	26,952	26,369	27,467
	(증감)	(301)	(-218)	(207)	(-59)	(119)	(-441)	(-380)	(618)
	(남성 증감)	(91)	(-82)	(43)	(-27)	(57)	(-169)	(-145)	(259)
	(여성 증감)	(210)	(-137)	(164)	(-33)	(62)	(-272)	(-235)	(359)
	고용률	60.9	60.1	60.5	59.9	59.8	60.0	58.6	61.0
	남성	70.7	69.8	70.3	69.7	69.4	69.8	68.5	70.4
	여성	51.6	50.7	50.9	50.5	50.5	50.6	49.1	51.9
	실업자	1,063	1,108	1,209	1,194	1,254	1,043	1,380	1,129
실업률	3.8	4.0	4.3	4.3	4.5	3.7	5.0	3.9	
남성	3.9	3.9	4.4	4.2	4.3	3.6	4.6	3.9	
여성	3.6	4.0	4.2	4.3	4.7	3.9	5.4	4.0	
비경제활동인구	16,318	16,773	16,351	16,729	16,846	16,889	17,239	16,452	
(증감)	(31)	(455)	(31)	(378)	(117)	(543)	(458)	(-225)	
15~ 64세	생산가능인구	36,791	36,639	36,803	36,686	36,548	36,574	36,571	36,525
	(증감)	(-5)	(-153)	(-3)	(-118)	(-138)	(-189)	(-142)	(-134)
	고용률	66.8	65.9	66.5	65.9	65.8	65.8	64.9	66.7
	남성	75.7	74.8	75.4	74.8	74.6	74.7	73.8	75.4
	여성	57.8	56.7	57.4	56.7	56.8	56.7	55.8	57.9
취업자	24,585	24,130	24,463	24,160	24,058	24,077	23,749	24,367	
(증감)	(74)	(-455)	(1)	(-302)	(-103)	(-647)	(-521)	(3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